

“고객의 정보 안전하게 보호하는 디지털 기업으로”

전북은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9일 인터넷뱅킹(웹, 모바일) 금고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보다 세계적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인터넷뱅킹시스템과 전북은행이 운영하는 전북 및 시, 군 금고 서비스까지 인증을 받았으며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관리체계 적정성과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대외 신뢰 확보를 공인받았다. 전병찬 전북은행부행장은 “은행은 디지털 금융에 사활을 걸고 디지털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며, “이러한 디지털 생선 전략이 안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취약점 등 지속적 개선, 보완하여 고객의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은 금융분야의 특화된 정보보호 전담 기관으로써 전산시스템의 정보유출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기업의 수립, 관리, 운영 중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적합 여부를 10개 점검항목에 따라 엄격히 심사(금융보

안원) 인증하는 제도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제도를 주관, 인증기관인 금융보안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보호실 차장 진승만(063-250-7546), 팀장 박성훈(063-250-749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축산 환경 개선 자연친화적 축산업 구현

농협은행,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특례보증' 지원

대표 관광지 인근 자영업자 대상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전북도와 협약을 통해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특례보증'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12일부터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선' 인근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소매,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전북농협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다.

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줬고 도내 자영업자는 1% 초반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농협은행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8년(가치기한 1년)이다. 김장근 농협은행본부장은 “최저임금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운 도내 자영업자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 받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전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라도 관광 100선 분야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북은 37개소에 해당된다. 대출금 이자는 전북도가 4년간 2.5%

한편, 대출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각 영업점, 전북신보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이 농업인의 날 기념, 9일 전주대 학생회관 앞에서 대학생 대상, 우리 전통 떡인 가래떡 나눔 행사를 했다.

‘농업농촌의 소중함 알리고 건강한 먹거리 홍보’

전북농협, 농업인의 날 기념 쌀 소비 촉진 위한 '가래떡-데이' 열어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기념, 9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대학생 대상, 우리 전통 떡인 가래떡 나눔 행사를 했다. 11월 11일은 한자 십(十)과 일(一)이 두 번 겹치는 날로 한자를 합치면 흙(土)가 되어 농업의 근간인 '흙을 상징하다' 하여, 1996년부터 농업인의 날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농업인의 날을 알리고 쌀 소비 촉진 확산을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가래떡-데이'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에, 전북농협도 매년 농업인의 날을 기념, 전북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데이' 행사를 하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알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홍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우리 지역 젊은 학생들이 전통적인 우리 식문화 가치를 깨닫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침 밥 먹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학생들을 상대로 더 많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의 우수 소상공인 자긍심 높인다

전북중기청, 30년 이상 운영중인 우수 소상공 대상 정책자금 우대·현장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2018년도 소상공인 백년가게로 선정된 전북 6개 가게의 토크쇼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3회차로 지난 9일에는 고창군 '개미상회'를 백년가게 선정, 자긍심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바람직한 롤모델로 사회전반에 알리기 위해 현장행보를 통한 '전북중기청장 주재'의 현판식 행사를 진행했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오늘 현판식을 갖춘 고창군 '개미상회'는 1985년 개업하여 한 곳에서 가게를 운영, 우여곡절을 많았지만 나름의 경영철학과 노하우를 가지고 극복한 데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잘 지원하고 보존해 나갈 가게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에 6개 백년가게가 발굴됐지만, 많은 우수 소상공인 백년가게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추가 선정되는 백년가게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현판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에 위치한 '개미상회' 백년가게 현판식에는 전북중기청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전북지회, 고창군지회 등 여러 관계기관에서도 참석, 자리를 빛내고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또한, 현판 제막 행사 이후에는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을 비롯, 주요 내빈들이 가게 대표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 업체의 성장스토리 (예로,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 청취, 추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 지원대책(8.22발표) 설명도 이어졌다. /김영태 기자

한편,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업력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도소매, 음식점) 또는 가업을 이어 받아 운영 중인 한 우물 경영을 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금년도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농업인의 날 기념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이벤트 펼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제2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협은행 신규거래 상품가입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쌀 500g '오! 그레놀라' 등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이벤트를 지난 9일 펼쳤다. 이날 이벤트는 쌀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응원, 식품가공을 통한 국산농산물 소비촉진과 부가치 창출을 위해 설립된 오리온농협(주)에서 새롭게 선보인 '오! 그

레놀라'를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오! 그레놀라”는 감정공, 과일, 쌀 등 우리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해 만든 밥 대용식으로 소비자에게 건강한 맛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근 NH농협은행전북본부장은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열어 농업인이 자랑스러워하고 도민과 고객의 사랑을 받는 농협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소규모 학교 초청 경제교육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1월 중내 소규모학교 두 곳의 학생 및 교사를 초청, 경제교육 및 문화체험을 11월 9일 남양초등학교(김제시 황산면) 전교생 및 교사(42명), 11월 16일 용북초등학교(익산시 용산면) 전교생 및 교사(33명) 진행 한다고 9일 밝혔다.

동 행사에서는 한국은행의 (기능, 역할) 화폐의 제조과정 등 대한 경제교육을 한 후 문화활동(자연생태 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관람, 전주 초코파이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소규모학교 학생,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초청 현장학습 외에도 일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 한 경제교육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향후에도 내실 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경제교육 수요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